

연중 제23주일 복음나눔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나눕니다)

4. 준비기도<성경을 읽기 전에>

- 다 같이 손을 잡고 성경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소리 내어 바칩니다.

5. 독서 (성경읽기 I) - 마태 18,15-20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5-20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17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그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마태오 복음서에 수록된 다섯 가지 설교 가운데 네 번째인 18장은 공동체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공동체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며 우리 삶과 신앙을 위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13,24-30 참조) 교회는 공동체 내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형제를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세 단계에 이르는 형제적 교정(16-18절)과 공동체 기도(19-20절)를 교회 공동체의 규범으로 제시합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12-14절)와 ‘형제의 죄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21-22절)는 말씀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복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공동체와 화해시킬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우선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야” 합니다.(15ㄱ절) 이는 그의 잘못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잘못을 환기시켜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잘못을 뉘우친다면 잃었던 양을 되찾듯이 형제를 얻게 됩니다.(15ㄴ절) ‘얻는다’는 것은 형제의 신앙이나 개인적 우정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 했거나 제명당할 처지의 교우를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충고를 듣지 않을 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고합니다.(16ㄱ절) 이는 신명 19,15에 준해서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규범과 1세기 유다교와 그리스도교회에서 송사를 할 때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을 채택하던 관례를 따르는 것입니다.(사도 6,13; 1티모 5,19)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마태 18,17ㄱ)는 그리스어 동사는 ‘무시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그 형제가 증인들 앞에서도 충고를 무시할 때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거든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합니다.(17ㄴ절) 선민사상이 확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7,6; 15,26 참조)과 자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상납하는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겨 백안시했습니다.(9,11)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명과 교회의 훈계마저 거부하는 형제는 더 이상 관여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 결국 파문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파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맺거나 푸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신 데 기인하는 것이며(16,19), “너희에게 말한다.”(18ㄱ절)는 것은 지역 교회에도 그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비록 회개하지 않는 형제가 있다 해도 교회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야 합니다. 용서는 죄인의 회개를 전제로 한 선택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형제를 파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죄를 지은 형제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하기보다 형제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병행하도록 권고합니다.(19절) 여기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 청하는’ 기도는 유일한 모임인 “교회”(17절)에 결속되어 봉헌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뜻합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죄인의 회개와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 역설적으로 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의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친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사도 2,42; 1코린 10,16 참조)

(해설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 묵상나누기

-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개인의 특별한 지향이나 소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